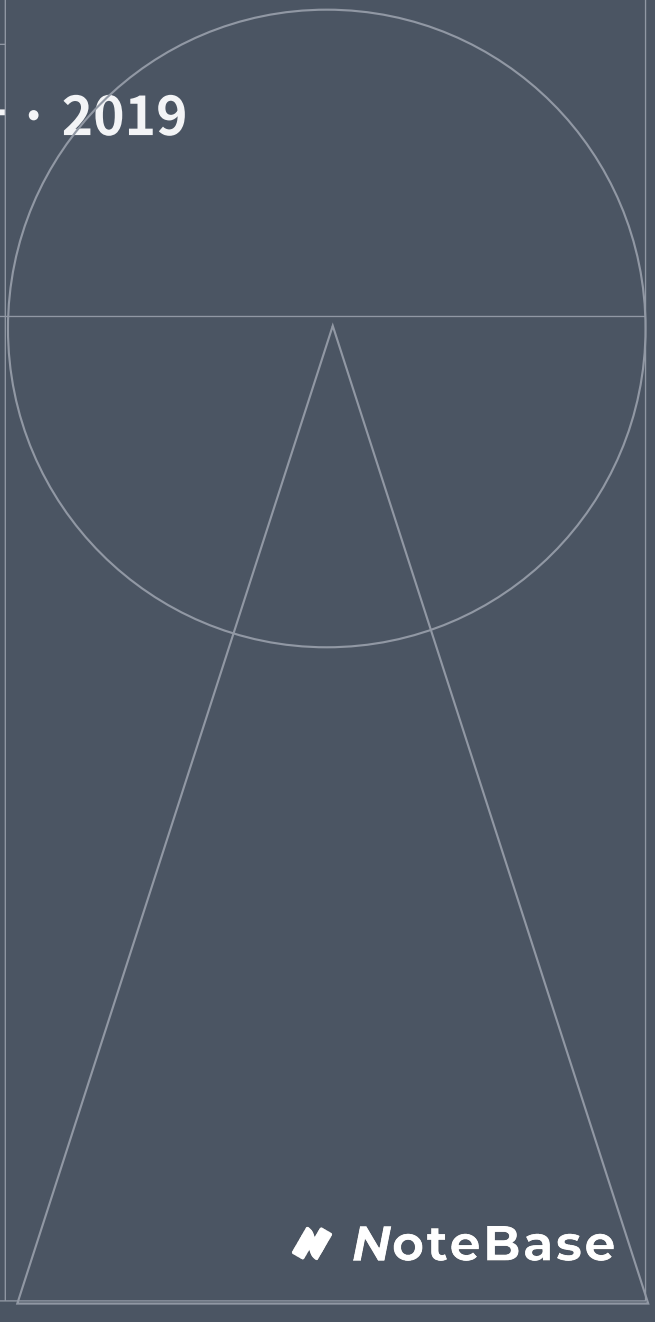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한국사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한국사 · 2019

공무원/국가직/7급 · 한국사 · 2019

문 1. 다음 토기가 사용된 시기의 생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토기는 그릇의 표면에 점토 띠를 덧붙여 각종 문양 효과를 내었으며, 바닥은 평저 또는 원저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 동삼동, 울주 신암리, 양양 오산리 유적 등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

① 움집에서 주거 생활을 하였다.
② 검은 간 토기를 함께 사용하였다.
③ 가락바퀴를 이용해 옷을 만들었다.
④ 농경이 시작되어 조와 기장 등을 경작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덧무늬 토기와 출토 유적을 단서로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신석기 시대는 토기를 만들고 간석기를 사용하며 정착 생활을 시작한 시기이다. 덧무늬 토기와 빗살무늬 토기, 움집, 가락바퀴, 조·기장 재배가 대표 키워드이다. 반면 검은 간 토기는 청동기 시대에 널리 사용된 토기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신석기 시대에는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였다.
2번 X: '검은 간 토기'가 틀린 표현이다. 검은 간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 토기이고, 제시된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덧무늬 토기이다. 올바르게는 '덧무늬 토기나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였다'이다.
3번 O: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사용하여 실을 뽑고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4번 O: 신석기 시대 후기에 농경이 시작되어 조와 기장 등을 재배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토기 이름만 보고 시대를 뒤섞으면 틀리기 쉽다. 덧무늬 토기와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민무늬 토기와 검은 간 토기는 청동기라는 구분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토기의 종류와 대표 유적을 먼저 보고 시대를 확정한 뒤, 주거 형태, 도구, 농경 여부를 그 시대의 특징과 대조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신석기=덧무늬 토기·움집·가락바퀴·조와 기장, 청동기=민무늬 토기·검은 간 토기이다.

NoteBase

문 2. ㉠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는 대군장이 없고, 후(侯) · 읍군 · 삼로 등이 있어서 하호를 통치하였다. ㉠의 풍습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하천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①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②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다.

③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많이 생산되었다.

④ 중대한 범죄자는 제가(諸加) 회의를 통해 처벌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대군장이 없고 읍군·삼로가 다스리며 책화와 산천 중시 풍습이 나타나는 동예의 특징을 다른 여러 부족 국가의 대표 키워드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예는 군장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여 읍군·삼로가 읍락을 다스린 부족 국가이며, 책화와 단궁·과하마·반어피가 대표 키워드이다.
부여는 왕 아래 마가·우가 등이 있었고 영고, 사출도, 1책 12법이 대표 키워드이다.
옥저는 민며느리제, 골장제 같은 혼인·장례 풍습이 대표 키워드이다.
고구려는 제가회의와 동맹이 대표 키워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영고는 부여의 제천 행사이다. 동예의 제천 행사는 무천이다. 틀린 표현은 '영고'이고, 올바르게는 '무천'이다.
② X: 민며느리제는 옥저의 혼인 풍습이다. 동예의 대표 풍습은 책화이다. 틀린 표현은 '민며느리제'이고, 올바르게는 '책화가 있었다'이다.
③ O: 동예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의 산지로 알려져 있다. 제시문 속 읍군·삼로, 산천 중시 풍습과도 서로 맞아 동예로 판단할 수 있다.
④ X: 제가회의는 고구려의 여러 가가 모여 중대사를 의논하던 회의이다. 동예는 읍군·삼로가 읍락을 다스린 사회였다. 틀린 표현은 '제가 회의를 통해 처벌하였다'이고, 올바르게는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로 중대사를 의논하였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동예·옥저·부여·고구려의 키워드를 서로 바꾸어 놓으면 쉽게 흔들린다. 특히 제천 행사에서는 동예의 무천과 부여의 영고를, 사회 풍습에서는 동예의 책화와 옥저의 민며느리제를, 정치 제도에서는 동예의 읍군·삼로와 고구려의 제가회의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읍군·삼로, 책화, 산천 중시가 보이면 먼저 동예를 떠올린다. 그다음 제천 행사, 혼인 풍습, 정치 회의처럼 다른 나라 고유 키워드가 선지에 섞여 있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동예는 읍군·삼로, 책화, 무천, 단궁·과하마·반어피이다.

NoteBase

문 3. 밑줄 친 '이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서는 서원경 부근 4개 촌락의 상황을 전하고 있으며, 호수와 전답의 면적, 가축과 과실나무의 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① 건원이라는 연호가 기록되어 있다.
② 전시과와 녹봉 제도의 운영 양상이 나타나 있다.
③ 호(戶)는 인정(人丁)의 다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었다.
④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인쇄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신라 촌락 문서의 기록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여 다른 시대의 제도와 유물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서원경 부근 4개 촌락이라는 공간 범위를 확인한다.
2. 호수, 전답 면적, 가축, 과실나무 수처럼 촌락의 생활 기반을 적은 문서인지 본다.
3. 이 특징을 신라 촌락 문서와 연결한 뒤 연호, 토지 제도, 인쇄 유물처럼 다른 시대 키워드를 제거한다.

핵심 근거

제시문은 서원경 부근 4개 촌락의 호수와 토지, 가축, 과실나무를 기록한 문서라고 설명한다.
이는 통일 신라의 촌락 지배와 수취 기반을 보여 주는 신라 촌락 문서의 전형적 특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건원이라는 연호"가 틀린 표현이다. 건원은 법흥왕 대에 사용한 신라의 독자 연호이며, 제시된 문서는 연호를 통해 알려지는 비석류가 아니라 촌락의 인구와 토지, 가축 현황을 적은 신라 촌락 문서이다.

② X
- "전시과와 녹봉 제도의 운영 양상"이 틀린 표현이다. 전시과는 고려의 토지 지급 제도이고, 제시된 문서는 통일 신라 촌락의 실태를 조사한 행정 문서로서 조세와 부역 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는 문서이다.

③ O
- 촌락 문서는 각 호를 인정의 다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었다. 국가가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각 촌락의 부담 능력을 파악하였음을 보여 주므로 옳은 선지이다.

④ X
-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 틀린 표현이다. 그 평가는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에 해당하고, 제시된 문서는 목판 인쇄물이 아니라 신라 촌락의 상황을 적은 행정 문서이다.

오답 포인트

신라 자료라는 공통점만 보고 ①, ②, ④를 함께 묶으면 틀리기 쉽다. 건원은 법흥왕의 연호, 전시과는 고려 제도, 세계 최고 목판 인쇄물은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라는 점을 각각 분리해서 기억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촌락 단위의 인구, 토지, 가축, 수목 조사가 보이면 신라 촌락 문서를 먼저 떠올린다. 이후 선지에 연호, 토지 제도, 불교 인쇄물처럼 시대와 성격이 다른 대표 키워드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서원경 4개 촌락, 호 9등, 토지·가축 기록이면 신라 촌락 문서이다.

NoteBase

문 4.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밑줄 친 ㉠과 빈 칸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S#3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상복 차림인 ㉠국왕, 대신과 여러 관원을 부르다.

국왕: 우리나라의 역대 임금님들이 지은 글은 제대로 봉안할 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창덕궁 후원에 ㉡을(를) 세우고 임금님들의 글을 봉안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를 담당하는 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하들: 이 일은 문치의 교화를 진작시킬 것입니다. 마땅히 관원을 두셔야 할 줄로 아뢰옵니다.

① ㉠ - 신경준에게 『동국여지도』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② ㉠ - 내수사와 궁방 및 각급 관청에 속한 관노비의 장적을 소각하도록 하였다.
③ ㉡ - 백성의 억울함을 왕에게 알릴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④ ㉡ - 조정 관료 중에서 재능 있는 문신들을 선발하여 이곳에서 재교육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정조가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초계문신을 재교육한 사실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은 정조이다.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상복 차림'은 정조가 영조의 국상 중에 즉위한 상황을 가리키며, '창덕궁 후원에 임금들의 글을 봉안할 곳을 세운다'는 것은 정조 즉위년(1776)에 이루어진 규장각 설치를 뜻한다. 두 단서 모두 정조를 특정한다.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왕실의 문한과 서적을 정리하고,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인재를 육성하였다.
㉡은 규장각이다. 규장각은 역대 국왕의 글과 서적을 보관하는 기능과 함께 정책 자문과 학술 연구, 초계문신 교육을 담당한 기구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동국여지도』는 영조 46년(1770)에 신경준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지도이다. 시대가 영조 대의 사업이므로 정조의 업적으로 볼 수 없어 틀렸다. 신경준은 이 밖에도 영조 때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 편찬에 참여한 지리학자였다.
② X: 내수사와 궁방 및 각 관청에 속한 관노비의 장적을 소각한 것은 1801년 순조 때의 공노비 해방(내시노비 혁파) 조치이다. 시대가 순조 대의 일이므로 정조의 업적으로 볼 수 없어 틀렸다.
③ X: 백성의 억울함을 왕에게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한 것은 규장각이 아니라 신문고이다. 규장각의 기능 설명이 아니므로 틀렸으며, 억울함을 상달하는 제도는 태종 때 설치된 신문고였다.
④ O: 규장각에서는 조정의 젊고 재능 있는 문신을 초계문신으로 선발하여 재교육하였다. 정조가 규장각을 정치·학문 중심 기구로 활용한 사실과 맞는다.

오답 포인트

정조의 대표 업적인 규장각을 떠올리면 ④는 비교적 쉽게 고를 수 있지만, 다른 선지에 영조의 지도 편찬, 순조 때 공노비 해방, 태종의 신문고처럼 시대가 다른 제도를 섞어 놓아 혼동을 유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후기 국왕 관련 문항은 먼저 인물과 핵심 기관을 1대1로 연결해 판단한다. 정조가 보이면 규장각·초계문신을, 억울함 상달이 보이면 신문고를, 1801년 공노비 해방이 보이면 순조를 먼저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정조 = 규장각 설치 = 초계문신 재교육이다.

NoteBase

문 5. 이규보의 역사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불교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대사 체계를 세웠다.

②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사서를 편찬하였다.

③ 고구려 계승 의식을 통해 고려의 기원을 신성시하고자 하였다.

④ 우리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하며 단군을 민족 시조로 인식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규보의 역사 인식을 다른 고려 시대 역사서 편찬자의 관점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이규보: 고구려 계승 의식 - 「동명왕편」을 통해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건국 서사를 부각하며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점을 드러냈다.
일연: 불교 중심 고대사 인식 - 「삼국유사」에서 불교 설화와 민간 전승을 폭넓게 수록하였다.
김부식: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 「삼국사기」를 편찬하며 기전체 정사를 정리하였다.
이승휴: 자주적 역사 인식 - 「제왕운기」에서 단군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선지별 해설

1번: X. '불교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대사 체계를 세웠다'는 설명은 이규보가 아니라 일연의 역사 인식에 가깝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불교 설화와 고대 전승을 중시하였다. 틀린 표현은 '불교사를 중심으로'이며, 올바르게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동명왕의 서사를 강조하였다'이다.
2번: X.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사서를 편찬하였다'는 설명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과 '기전체 사서 편찬'이며, 올바르게는 '이규보는 문학 작품인 「동명왕편」을 통해 고구려 계승 의식을 드러냈다'이다.
3번: O. 이규보는 「동명왕편」에서 동명왕의 건국 이야기를 재조명하여 고구려의 전통을 부각하였고, 이를 통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의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4번: X. '우리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하며 단군을 민족 시조로 인식하였다'는 설명은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더 잘 맞는다. 틀린 표현은 '단군을 민족 시조로 인식하였다'이며, 올바르게는 '이규보는 동명왕과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하였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고려 시대 역사 인물은 모두 민족 의식이나 고대사 서술과 연결되므로 혼동하기 쉽다. 이 문제는 '불교 중심이면 일연, 유교 합리주의와 기전체는 김부식, 단군과 자주 의식은 이승휴, 동명왕과 고구려 계승은 이규보'로 갈라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시대 역사 인식 문제는 인물명보다 대표 저술과 핵심 키워드로 판단한다. 「동명왕편」과 고구려 계승 의식이 보이면 이규보, 「삼국사기」와 유교 합리주의가 보이면 김부식, 「삼국유사」와 불교 설화가 보이면 일연, 「제왕운기」와 단군 강조가 보이면 이승휴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이규보 = 「동명왕편」 = 고구려 계승 의식이다.

NoteBase

문 6.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국 23년에 채택한 ㉠에는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무상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략)… 현재 우리의 급무는 연합군과 같이 일본을 패배시키고 다른 추축국을 물리치는 데에 있다. 우리는 독립과 우리가 원하는 정부, 국가를 원한다. 이를 위해 ㉠의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된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신한민보』–

① 보통선거 실시를 주장하였다.

② 조선 건국 동맹에서 발표하였다.

③ 파괴와 폭동 등에 의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하였다.

④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사료의 핵심 단서로 ㉠을 대한민국 건국강령으로 파악하고, 이를 다른 독립운동 노선 및 해방 직후 정치 움직임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채택한 건국 구상으로, 민주공화국 수립, 보통선거, 언론·종교의 자유, 무상교육 등의 방향을 담은 문서이다. 사료의 "민국 23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산 연도를 뜻하는데,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민국 원년이므로 민국 23년은 1941년(1919+23-1)에 해당한다. 또한 "연합군과 같이 일본을 패배시키고 다른 추축국을 물리친다"는 표현은 제2차 세계 대전(1941년 이후)의 국제 정세와 맞물려 이 연도를 뒷받침한다. 이 사료가 실린 『신한민보』는 미주 지역 대한인국민회의 기관지로, 해외 한인의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던 신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은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채택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므로 보통선거 실시를 내세웠다는 설명과 맞다.
② X: 틀린 표현은 "조선 건국 동맹에서 발표"이다. 조선 건국 동맹은 1944년 여운형이 국내에서 결성한 비밀 단체로, 1941년 임시정부가 채택한 대한민국 건국강령과는 주체와 시기가 다르다.
③ X: 틀린 표현은 "파괴와 폭동 등에 의한 민중의 직접 혁명"이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아니라 1923년 신채호가 의열단의 요청으로 작성한 조선 혁명 선언(의열단 선언)에 해당하며, 폭력 투쟁을 통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하였다.
④ X: 틀린 표현은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의 소집 요구"이다. 이는 194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김구·김규식 등이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추진한 흐름이며 19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연결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사료에 제시된 연도 단서인 "민국 23년"(임시정부 기산으로 1941년)과 내용 단서인 "언론·종교의 자유", "무상교육"을 놓치면 ③의 조선 혁명 선언이나 ④의 남북협상 관련 흐름과 혼동하기 쉽다. 출제자는 건국 구상 문서와 투쟁 노선, 해방 후 정치 협상 국면을 섞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료에서 1941년 임시정부의 건국 구상, 자유권 보장, 무상교육, 독립 후 국가 건설 방향이 함께 보이면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먼저 떠올리면 된다. 그다음 선지를 임시정부의 건국 노선, 의열적 혁명 노선, 해방 후 남북협상 흐름으로 갈라서 보면 정답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1941년(민국 23년) 임시정부의 건국 청사진이며, 보통선거·자유권 보장·무상교육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7. ㉠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는(은) 원에서 크게 성행하고 있었던 성리학을 국내에 소개하였으며, 중국 강남에 사람을 보내 공자와 제자들의 초상화 및 문묘에서 사용할 제기와 서적 등을 구해 오게 하였다.

① 최초의 성리학 입문서인 『학자지남도』를 편찬하였다.

② 충선왕이 세운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③ 원의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 성균관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확산시켰다.

④ 이 인물을 배향하기 위해 설립된 서원은 뒤에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안향과 고려 말 성리학 수용 과정의 대표 인물·기관·저술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안향: 고려에 성리학을 처음 소개하고 공자와 제자들의 초상, 제기, 서적을 들여와 유학 진흥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다.
이제현: 충선왕이 원에 세운 만권당에서 원 학자들과 교류하며 성리학 이해를 심화한 인물이다.
이색: 원의 제과에 급제하고 귀국 후 성균관에서 후학을 길러 성리학을 확산한 인물이다.
정도전: 조선 건국의 이념을 정리하고 『학자지남도』와 같은 성리학 입문서를 저술한 인물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학자지남도』를 안향의 업적으로 연결한 점이다. 『학자지남도』는 조선 초 정도전의 성리학 입문서이다. 안향은 고려에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인물로 보아야 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충선왕의 만권당에서 원 학자들과 교류한 인물을 안향으로 본 점이다.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성리학 이해를 심화한 인물은 이제현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원의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 성균관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확산한 인물을 안향으로 본 점이다. 이 내용은 이색에 해당한다. 이색은 성균관에서 정몽주, 정도전, 권근 등을 길러 성리학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다.
④ O: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세워진 백운동서원은 뒤에 소수서원이 되었고,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안향과 소수서원의 연결은 대표적인 인물-서원 매칭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고려 말 성리학 수용사는 안향, 이제현, 이색, 정도전의 업적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서로 섞이기 쉽다. 특히 안향은 도입, 이제현은 만권당, 이색은 성균관과 후학 양성, 정도전은 『학자지남도』로 구분해야 혼동이 줄어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사 매칭 문제는 문장 전체를 외우기보다 인물별 대표 표지를 먼저 잡아 판단한다. 안향은 성리학 최초 소개, 이제현은 만권당, 이색은 성균관 중심 확산, 정도전은 『학자지남도』로 연결하면 빠르게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안향=성리학 도입, 이제현=만권당, 이색=성균관 확산, 정도전=『학자지남도』이다.

NoteBase

문 8. 조선 초기 향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양인 남자에게 입학이 허용되었고 학비는 없었다.

② 모든 군현에 향교를 두기로 하고 군현의 규모에 따라 정원을 정하였다.

③ 매년 자체적으로 정기시험을 치러 성적 우수자에게는 성균관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

④ 학업 중 군역이 면제되었으나 성적 미달로 자격이 박탈될 경우 군역을 지도록 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초기 향교의 성격, 입학 대상, 정원 운영, 과거제 연계 방식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향교는 조선 시대 지방의 관학으로서 지방 인재를 교육하고 교화하는 기관이다. 조선 초에는 1읍 1교 체제로 정비되었고, 정원은 고을 규모에 따라 달랐다. 교생은 무상교육과 면역의 혜택을 받았으며, 학업 평가는 일강·월과·고강 등으로 이루어졌다.

선지별 해설

1번: O. 조선 초 향교는 양인 범주의 남성에게 비교적 넓게 교육 기회를 열어 두었고, 교생에게 무상교육 등 특전을 주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양인 남자에게 입학이 허용'되고 '학비는 없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2번: O. 향교는 지방의 부·목·군·현에 각각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정원도 고을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큰 고을일수록 정원이 많고 작은 현일수록 정원이 적었다.
3번: X. 틀린 부분은 '매년 자체적으로 정기시험을 치러 성적 우수자에게는 성균관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는 표현이다. 향교의 평가는 일강·월과·고강 등으로 이루어졌고, 우수자에게는 생원·진사 시험 회시에 나아갈 특전이 주어졌다. 향교가 해마다 자체 정기시험을 실시하여 바로 성균관 입학 자격을 주는 방식은 아니다.
4번: O. 향교 교생은 학업 중 군역이 면제되었지만, 성적이 부진하여 교생 자격을 잃으면 군역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면역 특전과 자격 박탈 시 군역 복귀를 함께 말한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3번은 '향교의 학업 평가'와 '성균관 진출 방식'을 한 문장에 섞어 놓은 함정이다. 향교 출신이 상급 교육이나 과거와 연결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곧 '향교 자체 정기시험 성적 우수자에게 성균관 입학 자격 부여'를 뜻하지는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교육기관 문제는 먼저 기관의 성격을 구분한다. 향교는 지방 관학,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이다. 다음으로 입학 대상, 설치 단위, 정원, 평가 방식, 과거 연계 혜택을 나누어 보면 선지의 서로 다른 제도가 섞였는지 판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향교는 지방 관학, 1읍 1교, 정원 차등, 교생 면역, 우수자는 과거 특전이라는 흐름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9. 백제 무령왕릉과 발해 정효공주묘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벽돌무덤이다.
ㄴ. 천장은 각을 줄여 쌓는 평행 고임 구조로 되어 있다.
ㄷ. 무덤방의 네 벽면에 회가 칠해지고 벽화가 그려져 있다.
ㄹ. 무덤에 묻힌 인물에 대해 알려 주는 문자 자료가 발견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령왕릉과 정효공주묘의 공통 요소와 개별 묘제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백제의 벽돌무덤이며 지석이 발견된 왕릉이다.
정효공주묘는 당의 벽돌 축조 요소와 고구려계 평행 고임 천장이 결합된 발해 고분이며 묘비와 벽화가 남아 있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ㄴ'이다. ㄱ은 두 무덤 모두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벽돌을 사용한 무덤이라는 점에서 맞다. 그러나 평행 고임 천장은 정효공주묘의 특징이므로 공통점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공통점은 ㄱ이고, ㄴ은 정효공주묘에만 해당한다'이다.
2번 O: ㄱ, ㄹ이 모두 맞다.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이고, 정효공주묘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벽돌을 활용해 축조되었다. 또 무령왕릉에서는 지석, 정효공주묘에서는 묘비가 발견되어 피장자를 알려 주는 문자 자료가 확인되었다.
3번 X: 틀린 부분은 'ㄴ, ㄷ이 공통점이라는 판단'이다. ㄴ의 평행 고임 구조는 정효공주묘의 특징이고, ㄷ의 네 벽면 회칠 벽화도 정효공주묘 쪽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공통점은 ㄱ, ㄹ이다'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ㄷ'이다. ㄹ은 맞지만 ㄷ은 공통점이 아니다. 네 벽면에 회를 칠하고 벽화를 그린 것은 정효공주묘의 특징으로 본다. 올바르게는 'ㄷ 대신 ㄱ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 조합은 ㄱ, ㄹ이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분의 특징을 섞으면 ㄷ을 공통점처럼 보기 쉽다. 또한 정효공주묘의 평행 고임 천장을 보고 이를 두 무덤의 공통 구조로 일반화하면 ㄴ에 끌리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무령왕릉의 핵심 표지를 중국 남조 영향, 벽돌무덤, 지석으로 잡고, 정효공주묘의 핵심 표지를 평행 고임 천장, 벽화, 묘비로 나눈다. 그다음 두 목록에 동시에 들어가는 요소만 공통점으로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무령왕릉은 지석, 정효공주묘는 벽화·묘비, 공통점은 중국 영향과 문자 자료이다.

NoteBase

문 10.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왕 24년 봄에 전라도 지휘사 김경손이 초적 이연년을 쳐서 평정하였다. 이때 이연년 형제가 원율·담양 등 여러 고을의 무뢰배들을 불러 모아 해양(海陽) 등의 주현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① 왕실의 원찰인 모련사가 창건되었다.
② 백련결사가 조직되어 백련결사문이 발표되었다.
③ 각훈이 왕명에 따라 『해동고승전』을 편찬하였다.
④ 수기의 주도 아래 대장경의 편집·교정이 이루어졌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연년의 난이 일어난 시기를 단서로 밑줄 친 왕을 고려 고종으로 파악하고, 고종대의 불교·문화 사업을 연결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밑줄 친 왕은 고려 고종이다. 고종대에는 각훈이 왕명으로 『해동고승전』을 편찬하였고, 요세 계열의 백련결사가 전개되었으며, 수기의 주도 아래 재조대장경의 편집·교정이 이루어졌다. 묘련사 창건은 충렬왕대의 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묘련사는 고려 왕실의 원찰이지만 고종대가 아니라 충렬왕대에 창건되었다.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과 연결한 진술로는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이다. 올바르게는 '묘련사는 충렬왕대에 창건되었다.'이다.

② O
요세 계열의 백련결사는 고종대에 본격화되었고, 천책이 지은 「백련결사문」도 고종 23년에 발표되었다. 고종대의 불교 결사 운동으로 연결하는 진술이 맞다.

③ O
각훈의 『해동고승전』은 고종의 왕명에 따라 편찬되었다. 따라서 이 진술은 고종대의 사실로 옳다.

④ O
몽골 침입 이후 재조대장경 조성이 추진되면서 수기의 주도 아래 대장경의 편집·교정이 이루어졌다. 이것도 고종대의 대표적 불교 문화 사업이다.

오답 포인트

고려 불교사를 시대별로 나누어 기억하지 않으면 묘련사와 백련결사를 같은 계열의 불교 용어로 보고 모두 고종대로 묶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사찰 이름의 유사성이 아니라 시기 차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문화사 선지는 사건 이름만 보지 말고 먼저 왕을 확정한 뒤, 그 왕과 연결되는 불교 사업·저술·사찰을 묶어서 판단하면 된다. 고종은 대몽항쟁기, 재조대장경, 백련결사, 『해동고승전』으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고종은 재조대장경·백련결사·해동고승전이고, 묘련사는 충렬왕대이다.

NoteBase

문 11. ㉠, ㉡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는(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쓸데없이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만에 하나 그들이 우리의 허점을 보고 우리를 업신여겨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면 장차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중략)… ㉡는(은) 본래 우리와는 싫어하거나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중략)… 하물며 ㉡, ㉠ 그리고 일본은 모두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① ㉠ - 청의 알선으로 조선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다.

② ㉠ -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다.

③ ㉡ - 천주교 박해에 항의하여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④ ㉡ -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책략』에 반대한 상소문의 문맥을 통해 ㉠을 미국, ㉡을 러시아로 파악하고 각 나라와 관련된 사건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료 읽는 순서

첫째,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는 표현에서 청의 중재로 수교한 미국을 찾는다.
둘째, '본래 우리와 원한이 없는 나라'라는 표현과 『조선책략』의 경계 대상을 연결해 러시아를 찾는다.
셋째, 이렇게 확정한 뒤 각 나라의 대표 사건을 선지와 연결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은 미국이다. 조선은 청의 알선 아래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고, 이 조약은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 조항을 둔 불평등 조약이었다.
2번: X.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청이다. 틀린 표현은 '㉠'이며, 올바르게는 '청은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다.'이다.
3번: X. 천주교 박해에 항의하여 강화도를 침략한 나라는 러시아가 아니라 프랑스이다. 틀린 표현은 '㉡'이며, 올바르게는 '프랑스는 병인박해를 구실로 병인양요를 일으켜 강화도를 침략하였다.'이다.
4번: X.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 나라는 러시아가 아니라 영국이다. 틀린 표현은 '㉡'이며, 올바르게는 '영국은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였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조선책략』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연대를 주장한 책자이므로 자료 속 ㉠과 ㉡을 서로 바꾸면 선지 판단이 뒤집힌다. 또한 병인양요의 프랑스, 거문도 사건의 영국을 러시아와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항기 자료 문제는 먼저 문장 속 관계를 읽어 국가를 확정한 뒤 그 국가의 대표 사건을 대입해 선지를 판단한다. '청의 권유로 수교'는 미국, '『조선책략』이 경계한 대상'은 러시아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조선책략』은 연미로 러시아를 막자는 구상이므로 자료의 미국과 러시아를 먼저 가르면 선지 판단이 정리된다.

NoteBase

문 12.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략)…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①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② 경찰범 처벌 규칙이 제정되었다.
③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④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쟁점

이 문제는 조선 회사령이 시행되던 시기의 연표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조선 회사령의 시행 시기인 1911년 1월부터 1920년 4월까지와 각 선택지의 연도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조선 회사령 = 회사를 세우거나 조선 밖 회사가 조선에 본점·지점을 설치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한 식민지 법령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제시문은 1910년 12월 제정되어 1911년 1월부터 시행된 조선 회사령의 내용이다. 다만 이 법령은 1920년 4월 폐지되었으므로, 정답은 1911년 1월부터 1920년 4월 사이의 사실이어야 한다.
경찰범 처벌 규칙 제정은 1912년으로 이 시기에 해당한다. 경성제국대학 설립은 1924년,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 금지는 193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상품 관세 철폐는 1920년대 이후의 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에 설립되었다. 조선 회사령은 1920년 4월에 폐지되었으므로 시기가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올바른 표현: 경성제국대학 설립은 회사령 시행기 이후인 1924년의 일이다.

② O
경찰범 처벌 규칙은 1912년에 제정되었다. 조선 회사령 시행기인 1911년 1월부터 1920년 4월 사이에 해당하므로 옳다.

③ X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이 본격적으로 금지되고 조선어가 교육 현장에서 배제된 것은 황국신민화가 강화된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일이다. 회사령 시행기와는 거리가 있다.
틀린 표현: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올바른 표현: 조선어 말살 정책은 1930년대 후반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④ X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세 철폐는 회사령 폐지 뒤인 1920년대에 추진되었고, 일본 상품에 대한 이입세의 본격 철폐도 1923년부터 진행되었다. 따라서 회사령 시행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올바른 표현: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회사령 시행기 이후인 1920년대의 일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회사령과 함께 떠올리기 쉬운 식민지 경제정책이라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회사령은 무단 통치기 초반의 법령이고, 관세 철폐는 1920년대 문화 통치기 경제정책과 연결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 제시형 한국사 문항은 먼저 법령의 시기 범위를 잡고, 각 선택지를 연도순으로 대조하면 된다. 무단 통치기인 1910년대, 문화 통치기인 1920년대, 황국신민화 시기인 1930년대 후반 이후를 구분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회사령 1911 시행, 경찰범 처벌 규칙 1912, 회사령 폐지와 관세 철폐는 1920년대라는 흐름이다.

NoteBase

문 13. 다음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일부이다. ㉠, ㉡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에서 천명된 (㉡)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 (중략) …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① ㉠: 7·7 선언, ㉡: 남북 공동번영 원칙

② ㉠: 6·15 남북 공동 선언, ㉡: 대북 화해협력 정책

③ ㉠: 7·4 남북 공동 성명, ㉡: 조국 통일 3대 원칙

④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3단계 통일 구상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남북 기본 합의서가 어떤 선언에서 천명된 어떤 통일 원칙을 재확인하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7·4 남북 공동 성명: 1972년에 발표된 남북 간 최초의 공동 성명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천명하였다.
조국 통일 3대 원칙: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 무력에 의하지 않는 평화, 사상과 제도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을 뜻한다.
6·15 남북 공동 선언: 2000년에 발표된 선언으로, 우리 민족끼리 통일 문제를 해결하고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것이 핵심이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 구상을 담은 정부 통일 방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7·7 선언'과 '남북 공동번영 원칙'이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7·7 선언의 원칙을 재확인한 문서가 아니라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6·15 남북 공동 선언'과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다. 6·15 남북 공동 선언의 핵심은 우리 민족끼리와 연합제안·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 확인이지, 지문처럼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 아니다.
③ O: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조국 통일 3대 원칙이 천명되었고, 남북 기본 합의서는 이를 재확인하였다. 지문의 '㉠에서 천명된 ㉡'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 연결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지문의 출처로 본 점이다. 3단계 통일 구상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내용이지만,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재확인한 것은 특정 정부의 단계론이 아니라 7·4 남북 공동 성명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이다.

오답 포인트

남북관계사 문항은 선언 이름과 통일 방안의 핵심어가 서로 비슷해서 시기와 내용이 뒤섞이기 쉽다. 특히 '3대 원칙'과 '3단계 통일 구상'은 숫자가 같아도 전자는 7·4 남북 공동 성명, 후자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남북관계 문항은 먼저 선언이나 방안의 이름을 보고 대표 키워드를 바로 연결하면 된다. 7·4 남북 공동 성명은 조국 통일 3대 원칙, 6·15 남북 공동 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와 연합제안·낮은 단계 연방제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3단계 통일 구상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7·4는 3대 원칙, 6·15는 우리 민족끼리,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3단계 통일 구상이다.

NoteBase

문 14. 고려 후기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서는 이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다.

② 재지지주로서 녹과전과 녹봉을 유력한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

③ 첨의부 등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면서 도당의 구성원으로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④ 왕실 또는 자기들 상호 간에 중첩되는 혼인을 맺어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관직 진출 방식과 경제 기반을 다른 지배 세력의 특징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권문세족은 고려 후기 중앙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며 음서와 혼인 관계로 지위를 유지한 지배 세력이다. 경제 기반은 대농장과 대토지 겸병이었다.
신진사대부는 지방 향리 출신이 많았던 신흥 관료층으로, 성리학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
결정 차이축은 관직 진출 방식과 경제 기반이다. 권문세족은 음서·고위 관직 독점·왕실 및 세력가문과의 혼인·대농장으로, 신진사대부는 과거·성리학·신흥 관료층으로 구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음서는 권문세족이 가문의 지위를 세습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다. 고위 관직을 배출한 가문이 음서를 통해 관직 진출의 통로를 이어 갔다는 점에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재지지주로서 녹과전과 녹봉을 유력한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는 표현이다. 권문세족의 핵심 경제 기반은 재지지주적 기반이 아니라 대농장과 대토지 겸병, 노비 보유였다. 올바르게는 "권문세족은 대농장과 겸병한 토지를 경제 기반으로 삼았다"이다.

③ O
권문세족은 첨의부 등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도평의사사의 구성원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중앙 정계의 핵심 기구를 장악한 세력이므로 옳다.

④ O
권문세족은 왕실과의 혼인이나 세력가문끼리의 중첩 혼인을 통해 정치적 유대와 특권을 강화하였다. 혼인 관계는 이들의 결속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오답 포인트

②는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다른 세력의 성격처럼 바꿔 놓은 선지이다. "재지지주"와 "녹과전과 녹봉" 같은 표현이 보이면 권문세족의 대농장과 토지 겸병을 떠올려 대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후기 지배 세력을 묻는 문제에서는 먼저 관직 진출 방식과 경제 기반을 분리해서 본다. 음서·고위 관직 독점·왕실과의 혼인·대농장이면 권문세족이고, 성리학·과거·신흥 관료층이면 신진사대부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권문세족은 음서와 혼인으로 권력을 잇고, 대농장으로 경제력을 키운 세력이다.

NoteBase

문 15.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국가에 반역한 큰 도적인 임꺽정 등이 이제 모두 잡혀 내 마음이 매우 기쁘다. 토포사 남치근, 군관 곽순수·홍언성 및 전 사복(司僕) 윤임에게 각각 한 자급씩을 더해 주고, 종사관 한홍제와 박호원에게는 각각 말을 내려 주라.

① 불교의 선교 양종을 부활하고 선과를 다시 설치하였다.
② 현직 관료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제를 도입하였다.
③ 현량과 시행을 통해서 유교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④ 기축옥사(己丑獄事)를 계기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었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사료에 나온 임꺽정의 난 진압을 단서로 국왕의 재위 시기를 명종 대로 파악하고, 그 시기의 사건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명종: 문정왕후의 영향 아래 불교가 다시 융성하여 선교 양종이 부활하고 승과가 다시 설치되었다.
세조: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제를 시행하였다.
중종: 조광조를 등용하여 현량과를 실시하고 유교적 이상 정치를 추구하였다.
선조: 붕당 대립이 심화되었고, 동인의 남인·북인 분화는 건저의를 계기로 전개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료는 임꺽정의 난이 진압된 뒤의 상황이므로 명종 대이다. 명종 때에는 문정왕후의 후원으로 불교의 선교 양종이 부활하고 승과가 다시 설치되었다.
② X. 틀린 부분은 "현직 관료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제"를 이 시기의 일로 본 점이다. 직전제는 세조 때 실시된 제도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현량과 시행"을 이 시기의 일로 본 점이다. 현량과를 통해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 한 것은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기축옥사를 계기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었다"는 점이다. 기축옥사는 선조 때의 사건이며, 동인의 남인·북인 분화는 건저의를 계기로 나타났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조선 중기 정치사에서는 왕별 핵심 사건이 서로 섞여 출제된다. 임꺽정이라는 단서를 놓치면 명종의 불교 부흥, 중종의 현량과, 세조의 직전제, 선조의 붕당 분화를 한 시기로 오인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료 문제는 사건명이나 인물명 하나로 먼저 재위 시기를 확정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다. 임꺽정이 보이면 명종 대를 먼저 떠올리고, 그 뒤 같은 시기의 정책과 사건만 남겨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임꺽정 진압과 불교 부흥은 명종, 현량과는 중종, 직전제는 세조, 동인 분화는 선조이다.

NoteBase

문 16. 양명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명종 대에 처음 전래되어 이황에 의해 이단으로 비판받았다.
ㄴ. 수용 초기 양명학자들은 성리학을 배척하여 양립할 수 없었다.
ㄷ.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과 정인보의 조선학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ㄹ.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과 왕가의 종친 그리고 서얼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가학(家學)으로 이어지면서 퍼졌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양명학의 조선 전래 시기, 초기 수용 태도, 후대 영향과 전승 기반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양명학은 왕양명의 심즉리·지행합일을 바탕으로 실천을 중시한 유학 사상이다. 조선에서는 성리학의 대안으로 일부가 수용했지만 초기에 곧바로 성리학을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후대에는 정제두를 중심으로 강화학파가 형성되었고, 소론 계열과 종친·서얼층을 통해 가학으로 이어졌으며 박은식·정인보 같은 국학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ㄱ, ㄴ을 모두 옳다고 본 조합이므로 틀리다. ㄱ의 틀린 부분은 "명종 대에 처음 전래"이다. 양명학은 조선 중종 때부터 전래되기 시작하였고, 이황이 이를 이단으로 비판한 점만 맞다. ㄴ의 틀린 부분은 "성리학을 배척하여 양립할 수 없었다"이다. 초기 수용자들은 성리학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이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고 병존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
2번 X: ㄱ, ㄹ 조합이므로 틀리다. ㄱ이 틀린 이유는 전래 시기를 명종대로 한정한 데 있다. 올바르게는 중종 때부터 전래되기 시작하였다. ㄹ은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 왕가의 불우한 종친, 서얼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가학 형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3번 X: ㄴ, ㄷ 조합이므로 틀리다. ㄴ은 초기 양명학자들이 성리학 자체를 전면 배척한 것으로 서술한 점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성리학의 권위주의와 형식성을 비판하면서 실천성을 강조한 것이다. ㄷ은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과 정인보의 조선학 운동에 양명학이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4번 O: ㄷ, ㄹ 조합이므로 옳다. ㄷ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국학자들이 양명학의 실천성과 주체성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맞다. ㄹ은 양명학이 강화학파로 이어지며 소론 계열, 종친, 서얼층 사이에서 가학으로 전승되었다는 점에서 맞다.

오답 포인트

ㄱ은 "이황에 의해 이단으로 비판"이 맞기 때문에 앞의 "명종 대에 처음 전래"까지 함께 맞다고 넘기기 쉽다. ㄴ도 양명학이 성리학 비판 사상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전면 배척으로 과장하기 쉽다.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 맞는 문장을 섞어 전래 시기와 수용 태도의 미세한 차이를 흔드는 함정이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의 양명학 문제는 먼저 전래 시기를 중종으로 잡고, 다음으로 초기 수용이 성리학 전면 부정인지 부분 비판인지 구분하며, 마지막으로 강화학파와 국학 운동으로 이어진 후대 전개를 연결하면 빠르게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양명학은 중종 때 전래, 이황이 비판, 정제두가 체계화, 강화학파와 국학 운동으로 계승되었다.

NoteBase

문 17. 다음의 정부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상태가 매우 좋은 갑종 백동화는 개당 2전 5리의 가격으로 새 돈으로 바꾸어 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개당 1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사들이며, 팔기를 원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단하여 돌려준다. 다만 모양과 질이 조잡하여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종 백동화는 사들이지 않는다.
— 「탁지부령」 —

<보기>
ㄱ. 한·일 신협약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ㄴ. 은화를 발행하여 본위화로 삼고자 하였다.
ㄷ. 제일 은행권을 교환용 화폐로 사용하였다.
ㄹ. 필요한 자금을 대느라 거액의 국채가 발생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탁지부령의 내용을 화폐 정리 사업과 연결하여 제일은행권 사용, 금본위제 표방, 국채 발생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료 읽는 순서

1. 사료가 구백동화를 갑·을·병종으로 나누어 교환·매수하는 내용인지 확인한다.
2. 이를 메가타 주도의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으로 연결한다.
3. 제일은행권 사용과 국채 발생은 맞고, 1907년 한·일 신협약과 은본위화는 아니라는 점으로 선택지를 고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ㄱ은 틀리고 ㄴ도 틀리므로 ㄱ, ㄴ을 묶은 1번은 옳지 않다. ㄱ의 잘못된 표현은 "한·일 신협약을 계기로"이다. 이 사업은 1907년 한·일 신협약이 아니라 1905년 메가타의 주도로 추진된 화폐 정리 사업이다. ㄴ의 잘못된 표현은 "은화를 발행하여 본위화로 삼고자"이다. 올바르게는 금본위제를 표방하였고, 은화는 보조화 성격이었다.
2번 X: ㄱ이 틀리므로 ㄱ, ㄹ을 묶은 2번은 옳지 않다. ㄱ의 잘못된 표현은 "한·일 신협약을 계기로"이다. 올바르게는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의 재정 간섭 속에서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ㄹ 자체는 맞다. 화폐 정리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와 국채가 늘어났다.
3번 X: ㄴ이 틀리므로 ㄴ, ㄷ을 묶은 3번은 옳지 않다. ㄴ의 잘못된 표현은 "은화를 발행하여 본위화로 삼고자"이다. 올바르게는 제일은행권을 중심으로 유통시키며 금본위제를 표방하였다. ㄷ은 맞다. 구백동화를 교환하는 데 제일은행권이 사용되었다.
4번 O: ㄷ과 ㄹ이 모두 맞으므로 4번이 옳다. ㄷ은 제일은행권을 교환용 화폐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맞다. ㄹ은 화폐 정리 비용과 자금을 일본 제일은행 등에서 차입하여 거액의 국채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맞다.

오답 포인트

사료에 은화가 함께 언급될 것이라고 연상하여 은본위제로 착각하거나, 시기를 1907년 한·일 신협약 뒤로 밀어 버리면 ㄴ과 ㄱ을 고르게 된다. 이 사료의 핵심은 구백동화 정리와 제일은행권 유통, 그리고 그 과정의 차관 의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백동화를 갑·을·병종으로 나누어 교환·매수하는 사료가 보이면 메가타 주도의 화폐 정리 사업을 먼저 떠올린다. 이어 제일은행권 유통, 금본위제 표방, 차관 도입에 따른 국채 증가를 연결하면 선지를 빠르게 거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화폐 정리 사업은 구백동화 정리, 제일은행권 유통, 차관 도입에 따른 국채 증가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8. 1930년대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전투에 참전하였다.

②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가 조선 의용군으로 재편되었다.

③ 의열단, 조선 혁명당 등이 결집하여 민족 혁명당을 창당하였다.

④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 혁명군이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30년대 항일 독립운동 단체와 전투를 시기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한국 독립군은 만주에서 활동하며 쌍성보 전투 등에서 성과를 낸 독립군 부대이다.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이 이끈 만주의 독립군 부대로,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흥경성 전투 등에서 일본군에 맞섰다.
민족 혁명당은 1935년 의열단·조선 혁명당 등이 통합하여 만든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정당이다.
조선 의용군은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가 1942년에 재편된 부대로, 1930년대가 아니라 1940년대 항일 무장 투쟁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한국 독립군은 1930년대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군 부대이며, 1932년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1930년대 항일 독립운동의 사례로 맞다.
2번: X. 틀린 부분은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의 조선 의용군 재편을 1930년대 일로 본 점이다.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가 조선 의용군으로 재편된 것은 1942년이므로, 올바르게는 1940년대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이다.
3번: O. 의열단·조선 혁명당 등 여러 세력이 결집하여 1935년 민족 혁명당을 창당하였다. 1930년대 민족 운동 세력의 통합 움직임을 보여 주는 내용이므로 맞다.
4번: O. 양세봉이 이끈 조선 혁명군은 1932년 중국 의용군과 함께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1930년대 무장 항일 투쟁에 해당하므로 맞다.

오답 포인트

조선 의용대, 조선 의용군처럼 이름이 비슷한 단체를 같은 시기 조직으로 묶으면 틀리기 쉽다. 1930년대 만주 지역 무장 투쟁과 1940년대 중국 관내의 조선 의용군 재편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든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체 이름만 보지 말고 창설·개편 시기와 활동 무대를 함께 확인하면 된다. 만주 전투사이면 주로 1930년대, 조선 의용군 재편처럼 화북 지대 개편이 나오면 1940년대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쌍성보·흥경성·민족 혁명당은 1930년대, 조선 의용군 재편은 1942년이다.

NoteBase

문 19.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왕의 국서에 이르기를, "열국(列國)을 거느리고 여러 번(蕃)을 총괄하면서,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풍을 지니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 길이 막히고 바다 역시 아득하여 소식이 통하지 않고 길흉을 물음이 끊어졌는데, 우호를 맺고 옛날의 예에 맞추어 사신을 보내어 이웃을 찾는 것이 오늘에야 비롯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①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궐과 손을 잡았다.

② 당으로부터 발해군왕의 책봉호를 처음으로 받았다.

③ 당에서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자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였다.

④ 요동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5경 15부 62주의 행정 구역을 완비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발해 무왕을 사료로 식별하고, 무왕·문왕·선왕·대조영의 업적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사료의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풍을 지닌다'와 일본에 사신을 보내 우호를 맺었다는 내용은 발해 무왕의 대외 팽창과 대일 외교를 가리킨다. 무왕은 당과 신라를 견제하며 돌궐 및 일본과 연계하였다. 대조영은 713년에 당으로부터 발해군왕 책봉을 받았고, 문왕은 안녹산의 난을 전후해 상경으로 천도하였다. 선왕은 영토를 넓히고 5경 15부 62주의 행정 체제를 정비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료는 일본에 보낸 무왕의 국서 내용이다. 무왕은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궐 및 일본과 연계하는 대외 정책을 폈다.
② X: '발해군왕의 책봉호를 처음 받았다'는 부분이 틀렸다. 처음으로 당에서 발해군왕에 책봉된 인물은 무왕이 아니라 대조영이다.
③ X: '당에서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자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였다'는 사실은 무왕이 아니라 문왕 시기의 일이다. 올바르게는 문왕이 안녹산의 난 이후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였다.
④ X: '요동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5경 15부 62주의 행정 구역을 완비하였다'는 업적은 선왕 시기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선왕이 발해의 영토를 크게 넓히고 행정 체제를 정비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발해 문제는 왕 이름 하나만 외우면 선지 함정에 흔들리기 쉽다. 무왕은 대외 팽창과 대일 외교, 문왕은 상경 천도와 제도 정비, 선왕은 최대 영토와 5경 15부 62주, 대조영은 발해군왕 책봉으로 연결해서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해 사료에서 일본과의 외교, 강경한 대당 정책, 고구려 계승 의식이 함께 보이면 먼저 무왕을 떠올린다. 그다음 각 선지를 대조영·문왕·선왕의 대표 업적과 하나씩 대조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무왕은 일본 외교와 대당 강경, 문왕은 상경 천도, 선왕은 5경 15부 62주, 대조영은 발해군왕 책봉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0.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 위원회는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건설의 준비기관인 동시에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적 세력을 집결하기 위하여 각층 각계에 완전히 개방된 통일기관이요, 결코 혼잡된 협동기관은 아니다.

① 각지에 치안대를 설치하였다.

②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③ 임정 지지를 주장하면서 한국민주당에 참가하였다.

④ 친일 청산 등을 명시한 좌우 합작 7원칙을 결정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광복 직후 등장한 정치 단체를 선언문과 대표 활동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광복 직후 여운형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건국 준비 기구로, 치안 유지와 행정 인수를 위해 각지에 지부와 치안대를 두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친일파 조사 기구이다.
좌우합작위원회는 1946년 좌우 합작 7원칙을 마련한 단체이다.
한국민주당은 우익 세력이 조직한 정당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지지를 내세웠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선언문의 "새 국가건설의 준비기관"이라는 표현은 건국준비위원회를 가리킨다. 건국준비위원회는 광복 직후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지에 치안대를 설치하였다.

② X
틀린 부분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이다. 올바르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은 1948년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며, 건국준비위원회는 1945년 광복 직후 자주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임정 지지를 주장하면서 한국 민주당에 참가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지지를 내세우며 한국민주당을 조직한 것은 송진우·김성수 등의 우익 세력이었고, 건국준비위원회가 한국민주당에 참가한 것은 아니다.

④ X
틀린 부분은 "친일 청산 등을 명시한 좌우 합작 7원칙을 결정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좌우 합작 7원칙은 1946년 좌우합작위원회가 마련하였고, 건국준비위원회는 그보다 앞선 1945년 광복 직후의 단체이다.

오답 포인트

해방 직후 단체들은 모두 분단 극복이나 새 국가 건설을 말하므로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인다. 이 문항은 건준, 반민특위, 한국민주당, 좌우합작위원회를 시기와 기능으로 섞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언문에 "새 국가건설의 준비기관"과 같은 표현이 보이면 광복 직후의 건국준비위원회를 먼저 떠올린다. 그다음 선택지는 1945년 건준의 활동인지, 1946년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인지, 1948년 반민특위의 활동인지 시기로 대조하면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건준은 1945 치안대, 좌우합작위원회는 1946 7원칙, 반민특위는 1948 반민족행위처벌법이다.

NoteBase